

낙농정책연구소 낙농소식



조석진
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소장

두유(soy milk)를 정말 ‘우유(milk)’라 부를 수 있는가?
식품관련 단체들이 FDA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시민단체 우수식품협회(GFI)는 미국식품 의약국(FDA)을 대상으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두유(soy milk)’라는 용어와 관련한 FDA의 규제적인 처리에 대한 기록을 밝히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의 불만은 FDA가 ‘두유(soy milk)’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어떤 업체에게는 제품라벨에서 ‘milk’라는 용어를 삭제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어

떤 업체에게는 이를 계속 사용토록 허용하는 등 모순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GFI는 2016년 4월, 별도로 된 3개의 ‘정보의 자유 법안’을 FDA에 제출하였으며, 그에 대해 FDA로부터 부분적인 답변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이에 GFI는 FDA의 충분한 해명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답변서는 FDA가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서류나 진행되고 있는 조사범위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지 않았으며, 확인된 전자기록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FDA의 결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GFI는 합리적인 조사 실시 및 모든 관심 있는 기록, 비용, 요금 등을 신속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청구했다.



FDA's inconsistent enforcement of the term "soy milk" prompts nonprofit GFI to seek formal clarification.

불합리한 정의

GFI는 무엇이 “두유(soy milk)”를 구성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FDA의 정의를 강요하면서, 낙농가들에게는 그들의 제품에 “두유(soy beverage 혹은 soy drink)”라는 표기를 요구하는 두 개의 경고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모순을 드러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한 예는 2008년에 FDA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Lifesoy Inc.’라는 회사에 경고서한을 발송한 것이다. 즉, 경고서한은 그 회사가 우유를 포함하지 않는 제품에 ‘두유(soy milk)’라는 표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 또 다른 경고서한은 2012년에 있었다.

당시 GFI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서류에 의하면, GFI의 변호사 Nigel Barrella씨는, “두유표기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흥미로운 부분이다.”라고 언급하였다.

“FDA와 때로는 미농무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른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같은 경고서한을 받음으로써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라고 Nigel Barrella씨는 소송서류에 적고 있다.

진행 중인 싸움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낙농가연합(NMPF)과 같은 단체들은, 유제품에 사용되어온 낙농분야의 용어가 10년 넘게 남용되어 오고 있는 것에 대해, FDA

가 엄중히 단속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였다.

즉, 2000년에 NMPF는 표준화된 식품인 “우유(milk)”라는 명칭의 오남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상거래의 불만을 신고하였다. NMPF의 주장은 “우유(milk)”에 대한 정의가 「USDA Code of Federal Regulation 131.110(a)」에 정의되어 있는 표준적인 정체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즉, 우유(milk)는 젖의 분비로, 사실상 초유가 없는, 한 마리 혹은 그 이상의 건강한 젖소로부터의 완전한 착유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음용을 위해 최종적으로 포장된 형태의 우유는, 저온살균 또는 초고온살균 되어야 하며, 8.25% 이상의 무지방분과 3.25% 이상의 유지방을 함유해야 한다.

해결방법의 모색

GFI에 의해 제기된 불만은, FDA가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청구권(FOIA)에 의해 20일 이내에 답해야 하는 법적시한을 지키지 않았고,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기록을 찾기 위한 정당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질의에 대한 승낙결과와 통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정부기관의 기록물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이다.

GFI는 FDA가 “두유(soy milk)”라는 용어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을 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함과 아울러 불공정한 경쟁구도를 초래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Barrella씨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FDA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무엇이 FDA로 하여금 지금까지와 같은 발언을 하게끔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FDA 대변인 Lauren Kotwicki씨는,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출처: Dairy reporter.com(by Mary Ellen Shoup, 2016, 6,14)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석진

국제유제품가격 언제쯤 회복될까?

by Tom Suber May 11, 2016

18개월 이상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제유제품시장의 가격회복은 아직 요원하다.

미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탈지분유의 국제시장 가격이 2009년 이래 공급과잉에 따른 최고 수준의 재고누증으로 지난 여름 12년 만에 최저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개월 동안 공급과잉이 지속됨에 따라 현 시장상황을 판단할 때 아직은 회복이 요원한 상태다.

이는 거의 대부분 EU의 증산 및 미국에 있어서의 약간의 증산에 따른 과잉재고와 최근의 유가(油價)하락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및 그로 인한 수요 감소에 기인한다. 한편 공급측면에서 EU의 원유생산이 2016년 첫 2개월 동안 5% 이상 증가함에 따라 원유생산이 늘어나는 봄철의 생산감축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 2015년 초 쿼터폐지에 대비한 EU 낙농가의 생산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유생산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 여러 EU 회원국에 있어서의 원유가격 하락 및 낙농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높은 다수의 낙농가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농가도 자금순환을 위해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
- 많은 낙농가와 유업체가 2016년 4월의 쿼터폐지에 대비하여 증산을 위해 시설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려온 만큼 투자비용의 회수를 위해 생산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협동조합이 낙농가의 저조한 현금흐름을 지지하기 위한 대출 또는 보너스지급을 통해 생산을 유지해 오고 있다.
- 그 외에도 EU는 가격안정을 위해 4월 중순까지 낙농가에 대한 직접지불 및 유제품시장

에 대한 개입물량을 두 배로 늘려 탈지분유 218,000톤과 버터 100,000톤을 매입하였다.

오세아니아의 원유생산이 예상한 만큼 줄지 않았다.


오세아니아의 경우 대폭적인 공급감소가 예상되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즉, 2015/16년도의 경우 뉴질랜드의 생산감축이 지난 가을 5~1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로는 2% 미만에 그쳤다. 그뿐 아니라 2월 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2%가 늘었다. 호주의 경우는 2015/16년도의 생산이 더운 날씨와 유가하락으로 인해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탄력적인 생산을 배경으로, 유제품재고가 쌓이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1~4월까지 EU의 탈지분유시장에 대한 개입재고가 140,000톤에 달해, 이미 보유 중인 재고 150,000톤까지 합치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 외에 미국의 치즈, 버터 및 분유재고가 통상적인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막대한 재고는 어느 정도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 수입국의 바이어들이 지난 해 유리한 가격에 수입을 늘려 상당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불투명한 수요동향

수요동향을 보면, 원유가격 하락에 따라 주요 산유국 및 유제품 수입국인 중동국가, 알제리, 나이지

리아, 인도네시아, 베네주엘라 등의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중국의 경제성장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킴과 아울러 그 여파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타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아시아개발은행은 2016년도 아시아의 경제성장률 예측을 2001년 이래 최저 수준인 5.7%까지 낮췄다.

국제유제품시장을 둘러싼 이 같은 수급 양면에서의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 여하에 따라 장기에 걸친 시장상황의 전환시점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금후 해소가 불가피한 현 재고누증을 감안할 때 2017년까지는 뚜렷한 가격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만일 EU가 보다 빨리 생산을 조절하거나 중국이 수입을 보다 늘릴 경우 사태의 진전이 기대된다. 그러나 여름철 기후 조건에 따른 생산 감축이 실현되기 전까지 가까운 장래에 그 같은 시장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의 고통스런 공급과잉 현상이 길어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전 세계 낙농의 성장을 이끌어온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매우 강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같은 의미에서 이는 '언젠가 시장상황이 지금과 같은 참체를 벗어나면'이라는 "가정(假)"이 아니라 '언제(when) 시장상황이 역전될 것인가' 하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출처: The U.S. Dairy Exporter Blog: Market Analysis, Research & News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